

서평

망각했던 ‘공간’에서 주목해야 하는 ‘공간’으로  
-여호규, 『시간이 놓친 역사, 공간으로 읽는다』(푸른역사, 2023)-

이 현 태\*

I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역사라는 단어에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어떠한 사물이나 사실이 존재해 온 연혁’, ‘자연 현상이 변하여 온 자취’ 등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역사는 시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갖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 그 사건 전후의 변화상을 자세히 분석하는데, 이때 짧게는 몇 년이라는 시간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길게는 몇백 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살피기도 한다. 이처럼 역사학 전공자에게 시간의 흐름을 살피는 작업은 너무나도 익숙하다. 그런데 역사는 시간 뿐만 아니라 공간이라는 또 다른 축을 전제로 한다. 돌이켜보면 어떠한 역사

---

\* 李賢泰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 00brain@hanmail.net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3.45..243>

적 사건은 특정한 공간에서 벌어졌지만, 그동안 한국 역사학계에서 공간, 나아가 지리가 갖는 의미에 주목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 영국의 역사학자 헤리퍼드 조지(Hereford Brooke George, 1838-1910)는 1901년에 출간한 『The Relations of Geography and History』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리 없이 역사는 납득 가능하지 않다. 이는 역사 전공자가 국경이 위치한 곳에서, 전쟁이 행해지는 곳에서, 식민단이 어디로 파견되는지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명백하게 그러하다. 그것은 지리적 사실이 역사적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다. 심지어 이미 확립된 국가의 입법적 그리고 사회적 발전조차도 지리적 사실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지리적 위치는 다른 국가들과의 지리적 교류의 성격과 정도에 영향을 끼치며, 따라서 이는 해외의 사유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의 성격과 정도에도 마찬가지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역사학 연구에서 지리적 사실이나 위치에 대한 검토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지적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역사학계에서 일찍부터 역사학 연구에서 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다양한 주제에서 지리적인 요인에 주목했던 데 반해, 한국 역사학계에서 ‘지리’는 여전히 생소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시간이 놓친 역사, 공간으로 읽는다』의 출간은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다.

저자는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구려사 전공자이면서 2000년대 이래로 고구려·백제·신라의 도성에 관해 천착하며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꾸준히 발표해 왔다.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자는 삼국 도성의 조영 과정과 공간구조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지만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2010년대에 출간된 지리학과 사회학 분야의 연구 논저 및 공간이론에 대한 번역서에 힘입어 지리나 공간과 관련한 주요 용어와 개념을 익히며 공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조금씩 넓혀갔고, 실증적

연구만으로는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하나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책은 그동안 저자가 진행한 삼국의 왕궁과 도성, 소경(小京), 별도(別都)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공간이론을 접목하여 한국 고대 공간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간의 역사를 규명할 연구 방법론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그동안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공간',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공간'이 갖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동시에, 왕궁과 도성 등 통치의 중추를 이룬 '공간'을 본격적인 논의의 장으로 불러내었다.

## Ⅱ.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을 살피기 위해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머리말

1. 공간, 왜 주목해야 하나
2. 공간 이해의 출발점
3. 고대인들이 바둑판 모양 계획도시를 건설했다고
4. 왕의 거주 공간이 왕궁이 되기까지
5. 지방 각지에 '또 다른 서울'을 건설한 까닭  
못다한 이야기

이 책은 머리말과 맺음말에 해당하는 '못다한 이야기'를 제외하면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왜 공간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 저자는 근대 역사학에서 공간이 주목받지 못했던 까닭을 서구가 이룩한 근대문명에 기준을 둔 시간 우위의 역사관에서 찾았다. 그런데 시간 우위

역사관의 기저에는 서구 중심적 편향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근대를 기준으로 세계 각국을 근대문명을 이룬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나누고, 나아가 문명화된 국가가 미개한 국가를 식민 지배하는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적 변화와 함께 공간에 주목해야 하며,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 공간이 단순히 역사의 무대에 불과했던 것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별·사회별·생산양식별로 공간의 특성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구조나 정치체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제 ‘공간’에 대한 검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당시의 공간을 복원해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저자가 다양한 공간이론에 주목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이 컸다. 제2장에서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며 공간이론을 소개한 것도 그 때문이다. 고고학과 달리 문헌자료에 기반을 둔 역사학에서 특정한 이론을 토대로 논지를 펼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저자도 공간이론에 대한 소개가 독자에게 생경한 느낌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다. 이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위치(location), 장소(place), 공간(space)과 같은 지리학의 핵심적인 개념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고, 장소 정체성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개념을 고구려 초기 숲속이나 강변 등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공간을 택해 정치회합을 하거나 제의(祭儀)를 거행한 사례에 적용하여 고구려의 건국을 주도한 세력은 국가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공유하던 전통적인 ‘장소 정체성’을 적극 활용하였다는 주장을 펼친다.

사회구조나 정치체제가 진전될수록 공간 역시 복합적인 양상을 띠기 마련이다. 어떤 특정한 물리적 공간을 가리키는 ‘절대 공간’과는 달리 ‘상대 공간’에서의 공간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창조되거나 변화될 수 있음을 상정한다. 이 같은 ‘상대 공간’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공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여지가 생긴다. 특히 전근대의 도성처럼 공간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인간에 의해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복합적 기능을 갖는 상태로 재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흔히 ‘사회적 생산 공간’으로 개념화하곤 하는데, 저자는 이러한 ‘사회적 생산 공간’이야말로 역사학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공간 연구의 핵심 개념이라고 판단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삼국의 도성은 왜 바둑판 모양처럼 반듯하게 도지를 구획하였는지, 삼국 초기에 왕의 거주 공간은 왜 경복궁처럼 짓지 못하였는지, 삼국은 왜 지방에 또 다른 서울이라 할 수 있는 소경(小京)과 별도(別都)를 두었는지 등 목격하면서도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이는 ‘사회적 생산 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고대의 공간을 새롭게 분석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격자 형태로 도성을 구획한 것은 고대의 신분제를 구현하려는 목적 때문이며, 왕궁은 왕권의 위상 및 정치체제의 변화 과정과 연동해 구조가 달라졌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지방에 또 다른 서울을 만든 것도 고대 국가의 영역 지배와 관련이 있으리라고 보았다. 이렇듯 한국 고대사를 풍부하고 다채롭게 이해하기 위해 저자는 우선 도성과 지방의 거점 도시 등 고대의 통치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공간을 통한 역사 읽기를 시도하였고, 기존과는 다른 참신한 견해를 내놓았다. 저자의 논지를 따라가다 보면 한국의 고대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왕궁과 도성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려진다. 나아가 그 여파는 도성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의 핵심 거점 도시까지 미친 것이다.

### Ⅲ .

이 책은 공간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고대 공간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는데, 제3~5장에서 다루는 공간이론을 한국 고대의 공간에 접목한 사례는 삼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삼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양상에 바탕을 둔 점이 특징이다. 이 점에서 저자가 처음부터 염두에 두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고대 국가의 발전단계에 대한 논의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고대의 도성과 달리 고려의 개경과 조선의 한양은 서해 해로와 내륙 수로를 활용한 조운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신라나 고구려처럼 소경(小京)과 별도(別都)를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은 ‘공간’이라는 키워드로 전근대를 관통하는 논의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저자가 이야기한 “공간 개념을 원용하면 다양한 인간집단의 활동 범위나 영역 지배의 일반적인 원리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164쪽)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자는 공간이론을 한국 고대사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다소 성급한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저자의 문제 제기와 공간이론을 통한 새로운 역사 읽기는 한국의 고대사 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도성이 모두 바둑판 모양의 계획도시로 건설되었다고 하지만, 고구려 평양성이나 백제의 사비도성은 천도나 도성의 이전을 전제로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과 달리 신라의 경우 천도나 도성의 위치 이전은 전무하다. 저자는 바둑판 모양의 계획도시라는 점에 천착한 나머지 이러한 차이점을 깊이 있게 고민하지는 못한 듯하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 신라 모두 격자 형태로 구획된 토지를 분할하고 지급하는 방식이 어떠했는지, 나아가 그러한 공간에 살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양상은 거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경주 지역에서 조사되는 도로 유구를 비롯해 도성 관련 유적의 최근 발굴 사례를 접하다 보면 신라 도성이 과연 바둑판 모양처럼 구획되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는데, 천 년 동안 수도로 가능한 공간의 구조를 밝히는 것이 역시 간단찮은 문제임을 실감하곤 한다. 대단히 아쉽게도 아직까지 신라 도성은 물론이고 백제나 고구려의 도성 구조와 관련해 속 시원하게 밝혀진 부분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삼국의 도성이란 역사적

실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규명한 다음에 공간이론을 접목하면 더 다양하면서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현 단계에서 공간이론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니, 불필요한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

삼국의 도성을 바둑판 모양의 계획도시로 조영한 배경을 도성민의 통제가 아니라 신분제의 구현과 관련지어 이해한 점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여기에 더해 격자형 도시계획이 기존 지배 세력의 재편과 관련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저자도 언급한 것처럼 격자 형태로 토지로 구획한 다음 신분과 관등에 따라 택지를 차등적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 과정에서 귀족 세력들의 지역적 기반이 해체되거나 적어도 새롭게 재편되었음은 충분히 고려해 볼 법하다. 삼국의 도성이 격자 형태로 구획이 이루어지던 시점이 왕권이 귀족 세력을 압도하기 시작한 이후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은 연구자를 위한 전문적인 학술서적이 아니라, 한국역사연구회에서 다채로운 최신 연구 성과를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해 기획한 역사 대중서인 ‘금요일엔 역사책’ 시리즈 가운데 한 권이다. 이 때문에 분량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앞서 평가가 이야기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열어두지 못했던 듯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다. 그 대신 기존에 저자가 작성한 실증적인 글에 공간이론을 접목하는 선에서 책을 출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책의 한계라기보다는 대중서의 특징에서 말미암은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익숙한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비롯해 다양한 사례와 삽화 등을 곳곳에서 활용한 대목은 대중서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딱딱한 학술서적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대중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과감히 역사 대중서를 택한 점도 이 책이 지닌 목직함 못지않게 역사학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데, 역사학이 더 이상 연구자나 상아탑의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런 점에

서 이 책은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평소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특히 왕궁과 도성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아울러 ‘공간’에 대한 저자의 또 다른 연구 성과가 벌써 기대된다.